



◀ 피어스 라이온스 사장

1980 올텍 설립, 현 사장
아일랜드대학 학사/석사
영국 버밍엄 대학 박사

▲ 올텍 설립자인 피어스 라이온스 박사가 세계복싱 영웅인 '무하마드 알리'의 후원 등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6월 16일 제22회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차 서울에 방문한 올텍 설립자인 피어스 라이온 박사를 만나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 올텍은 어떤 회사입니까?

A 올텍은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료첨가 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총 약 5억 달러의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980년 회사 설립 이후 현재 전 세계 113개국 1,9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계속하여 우수한 제품들을 연구, 개발, 생산하며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올텍코리아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상훈 지사장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8년전 설립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 최근 들면서 매년 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텍은 현재 전 세계 동물건강 관련 상위 20개 회사 중 하나이며 유일하게 동물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Q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의 성격은?

A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Asia-Pacific Lecture Tour -APLT)은 전세계 경기한파로 경제와 사업이 위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생산자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2회째를 맞이한 이번 순회강연은 최신의 연구를 소개하고 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홍보하기 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최신의 정보와 기술이 소개되기 때문에 농장이나 사료, 약품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올텍 본사 전경



▲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을 마치고 올텍 식구들과 함께(좌부터 이상훈 올텍코리아 사장, 스티브 본 아시아 총괄사장, 피어스 라이온스 사장, 러셀 트레이너 제너럴매니저)

Q 올텍의 연구방향과 목표는?

A 올텍의 핵심 연구는 ‘효모, 발효, 고상발효 효소제, 펩타이드 기술’이며, 천연의 해결방법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제품을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 및 연구결과를 국가별 순회강연, 국제 사료산업 심포지엄, 세미나, 뉴스레터, 논문 및 전문기술 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텍은 동물의 사육성적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주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올텍은 교육, 혁신 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까지 125명의 석·박사를 지원하여 배출했으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Q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있다면?

A 미국 켄터키주에는 3대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KFC, 무하마드 알리, 올텍입니다. 올텍은 세계 2010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열리는 2010년 FEI국제승마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승마대회 지원은 최초로 미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90만명의 관중이 예상되면서 올텍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이 세계복싱 챔피언

연인 무하마드 알리 재단을 후원하면서 성인 및 어린이에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위한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밤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는 올텍축제, 올텍 캔터기 맥주 등의 행사를 통해 올텍의 브랜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쓰나미 참사 구조활동, 아프리카 에이즈 구급활동, 중국 대지진 참사 지원, 미국카트리나 허리케인 지원 등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양계인들에게 한 말씀?

A 20여년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학자나 사업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층이 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따라서 한국의 양계인들도 이제는 과거의 기술을 고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90% 이상의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비 절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올텍에서 양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터뷰 | 김동진 편집장)

INTERVIEW